

# 어린이 수련회 '재미있게, 알차게'



신행연장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생들 여름나기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와 수련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15일 거제도에서 열린 해인정사의 여름 불교학교는 특별했다. 그 비결은 바로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1학기 과정에서 어린이법회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을 배우고 익힌 교사 11명이 지도교사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산하의 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로 47명의 학생중 11명의 교사들이 방학을 맞아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찰과 단체의 요청에 응해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각 지역의 수련회를 진행하며 1학기동안 배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고 어린이들의 불심을 키워냈다.

동화사 여름불교학교 300명, 구미 불교연합회 190명, 경기도 천은정사 30명, 향상선원 200명, 해인정사 70명까지, 이들의 활동으로 불심의 씨앗을 심은 어린이들이 총 900여 명이 있을 정도다.

또한 이들은 불법을 놀이와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련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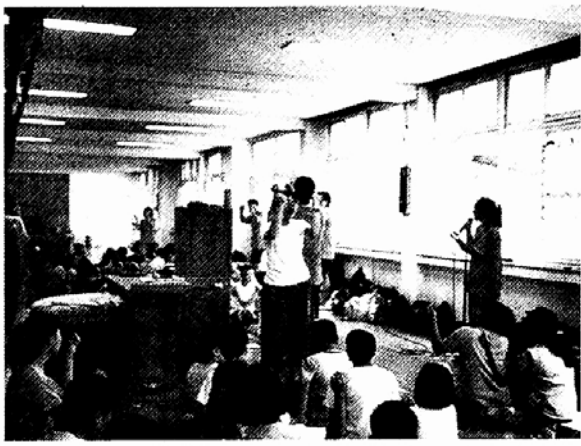
재미를 더했다. 삼보일배, 사경, 사불, 자연물로 우리질 꾸미기, 색종이 만들기, 참선, 찬불가 율동, 캠프아이, 사랑의 편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1학기 동안 배운 지식 전부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쏟아 부었다.

"이런과 실제는 역시 많이 다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도교사들이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허를 내두를 정도로 어린이들을 대하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아이들의 밝고 맑은 마음을 만날때면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과 가장 잘 놀아주었다는 평가를 받은 장철(27) 동서정 보대 교사는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봉사활동 하기도 어려워 질 것 같아 무척 아쉽다"며 "직장을 다녀도 휴가기간을 이용해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을 만큼 오히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들은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들 만나 더욱 알찬 수련회를 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생들이 15일 거제도에서 열린 해인정사 여름 불교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불심을 일구어 주고 있다.

장은 "교사가 없어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찰이 많은 형편이라 11명의 교사들의 봉사활동은 더욱 값진 것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더욱 많은 곳에 교사들을 지원해 수련회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로 어린이 포교에 앞장 서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보내버린 11명의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생들은 배운 것을 실천에서 회화하며 더 큰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어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는 어린 부처님들의 환한 웃음을 격려 삼아서.

대한불교교사대학 최미선 총무차장은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배운 것을 실천에서 회화하며 더 큰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어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는 어린 부처님들의 환한 웃음을 격려 삼아서."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보내버린 11명의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생들은 배운 것을 실천에서 회화하며 더 큰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어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는 어린 부처님들의 환한 웃음을 격려 삼아서.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보내버린 11명의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생들은 배운 것을 실천에서 회화하며 더 큰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어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는 어린 부처님들의 환한 웃음을 격려 삼아서.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보내버린 11명의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생들은 배운 것을 실천에서 회화하며 더 큰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어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는 어린 부처님들의 환한 웃음을 격려 삼아서.

## 주제가 있는 법문

###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웃과 나누면 두배 기쁨"

〈화엄경 명법품〉에 열 가지의 바라밀이 나옵니다. 바라밀이란 도피안(倒彼岸)이라 번역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사바의 세계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바라밀이란 저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열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업스님 부산 화엄법계사 주지

그런데 어떤 날 목욕탕 창구에 있는 보살님이 일회용 비누 한 개를 건네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서점에서 법장 스님의 〈오두막 편지〉를 보다가 그 보살님 루으로 한 권을 더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살님은 "그냥 쓰세요"하면서 거스름돈에 일회용 면도기를 얹어 주시 시작했습니다.

### 주면서 아까워않고 받으면서 부담없게

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용수 보살이나 법장 스님은 세 가지의 나눔(布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나눔, 진리의 말을 전해주는 나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의(無畏)의 나눔입니다.

이 나눔의 보시행이 구경 성불의 길이며 해탈 열반의 길이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함으로써 만족하려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충족 시킴으로써 느끼는 만족이 있고, 욕망을 비움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채우면 채우수록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웃과 나누면 나눔수록 기쁨은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요즘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사로 밤 12시가 넘도록 분주하다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생활상의 오랜 습관 때문이었을까. 새벽 4시가 되자 나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으나 몸이 무거워 목욕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날 이후 새벽예불 후 목욕 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 창구에 있는 보살님이 일회용 비누 한 개를 건네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서점에서 법장 스님의 〈오두막 편지〉를 보다가 그 보살님 루으로 한 권을 더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살님은 "그냥 쓰세요"하면서 거스름돈에 일회용 면도기를 얹어 주시 시작했습니다.

나눔의 보시가 진정한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열 가지의 나눔(什種布施)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이 삼종원만청정보시(三種圓滿淸淨布施)입니다. 세 가지가 원만하고 깨끗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란 나누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나누어 주는 물건을 말합니다. 원만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받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음을 뜻합니다. 주면서 조건이 없고 받으면서 달리 목적을 두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나누어 주면 서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받으면서도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기에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원만하고 청정할 때 우리는 작은 나눔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눔의 실천행이 저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 신행캘린더

8월 22일(수)

■비폭력문화정착을 위한 세미나=비폭력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027737-1884

8월 23일(목)

■사찰순례법회=능인선원은 8월 사찰순례법회를 개최한다. 순례지는 포항 보경사와 오서사. 01119860-7071

8월 25일(토)

■칠석기도=금강정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칠석기도를 봉행한다. 02893-2700

■연꽃대축제=무안군불교사찰연합회는 28일까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 화산리 연꽃방죽에서 '연꽃 단상, 부처님 치림'을 주제로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를 연다. 0611245-5997

■티베트 문서 규명 학술대회=보조사상연구원은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송강사 소장 원대 티베트 문서 규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27733-5315

■수월관음 점안대회=울산시 북구 중산동 봉대산 수월사는 오후 2시,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을 증명법사로 수월관음 점안대회를 봉행한다. 052285-1118

8월 26일(일)

■동산불교대 졸업식=동산불교대학은 오후 2시 회관 2층에서 제15기 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한다. 027732-1206

■삼광사 연극 <육권존자>공연=부산 삼광사는 오후 8시 지관전 불교문화관에서 연극 <육권존자>를 공연한다. 이연택씨가 연출하고 연희단 거리매 50여명이 출연한다. 051888-7111

■우란분절 기도=강남포교원은 오전 10시부터 9월 2일까지 대웅전과 설법전에서 우란분절 기도를 봉행한다. 02539-2631

8월 27일(월)

■불광사 정기법회=불광사는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8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413-6060

8월 28일(화)

■영주장애인복지관 개관식=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후 3시 복지관 개관식을 봉행한다. 054633-6415-8

■국립춘천정신병원 정기법회=국립춘천정신병원불자회는 오후 6시 30분 병원법당에서 만성스님을 지도법사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3353-3030

## 생활속의 불교

## "흙냄새 모르는 영원한 올챙이"

순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험난했던 길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의 길은 길이 아니다. 오직 열반의 길만이 길이다."

진리의 길, 그것은 열린 마음의 길이다. 고정관념이라는 철벽을 깨 뒤에는 보이는 길이다. 마음을 비워야 볼 수 있는 길이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꼭 틀어막 마음이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길은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길은 길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형상에 집착해 온갖 관념으로 가득한 머리 속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일러주시기 위한 것이다. 길은 본래 누구에게나 뒤희 열려 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

다. 웅덩이 속 올챙이가 개구리에게 물은 어찌나고 물었다. 개구리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지만 올챙이는 물에 대해 나름대로 상상은 할 수 있어도 흙냄새나 풍경은 제대로 알 수 없는 법이다. 나중에 개구리가 되어 스스로 웅덩이를 벗어났을 때야 물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스스로 마음을 열고, 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올바른 길을 볼 수가 없다. 남이 일러준 길은 길이 아니다. 상상의 길일 뿐 실제의 길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가득한 경전은 다만 지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보는 실제상황

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에만 가능하다.

부처님 분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해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가장 길다란 길, 자유의 길, 진리의 길, 해탈의 길은 닫힌 마음을 여는 데서, 고정관념을 비우고 천진한 눈과 귀로 사물을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 길을 찾으려거든 한생각 돌라서 딱지딱지 달라붙은 고정관념부터 떼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자기'라는 관념에 매달려 제 좁은 소견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보람있게 사는 길이라 믿는다면 길은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이다.

끝내 흙냄새를 맡아보지 못하고 올챙이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대학 개강 (2년제)

정토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이 왜곡되지 않은 「바른불교」, 어렵고 난해하지 않은 「쉬운불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불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년, 4학기 과정)

교과과정			
■ 불교입문과정: 실천적 불교사상	■ 불교와 사회 I: 불교와 인문사상	■ 불교와 사회 II: 불교와 환경생명사상	■ 불교와 사회 III: 불교와 평화
■ 부처님의 생애: 인간본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불교와 사회 IV: 불교와 복지	■ 기타: 특강 및 수행수련	
■ 근본불교: 불교사상의 뿌리			
■ 변천사: 한국불교 및 인도불교, 세계불교변천사			
■ 불교교양: 대중불교의 꽃			
■ 수행론: 참나를 찾아서			

서울	교육기간	요일	법회시간
서울	9/4-12/11	매주 화	주/야
부산	9/3-12/10	매주 월	주/야
대구	9/5-12/12	매주 수	주/야
대전	9/7-12/14	매주 금	주
청주	9/7-12/14	매주 금	야
마산	9/4-12/11	매주 화	주

원서교부 및 접수처      모집대상 및 입학금

서울정토불교대학 02) 587-8993      회 대 상 : 만 19세이상 누구나 다

부산정토불교대학 051) 557-2746      회 참가비 : 6만원 (한 회)

대구정토불교대학 053) 744-3025      회 접수기간 : 7월 16일 ~ 9월 24일

대전정토불교대학 042) 253-8990      회 접수 및 문의 :      각 지역 대학 사무국

청주정토불교대학 043) 284-5951      \* 본과정은 중간학기부터

마산정토불교대학 055) 247-8991      시작하여도 됩니다.

011) 9000-9529

##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통신대학 개강 (2년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들을 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기본 교과내용으로 하면서 사회적 실천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신 법륜스님께서 정토불교통신대학에서 강의합니다.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는 법륜스님의 통신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입학대상: 성인 남녀 누구나 (연령, 학력 제한 없음)
2. 교육기간: 2년(4학기)
3. 특전사항: 2년 전과정을 미친사람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교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이 주어집니다.
4. 접수기간: 7월16일 ~ 9월 24일 (월요일)
5. 접수 및 문의: 정토불교대학 사무국      전화: 02-587-8994 / 전송: 02-587-8998
6. 입학식·소집일: 2001년 9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 정토외관
7. 교육방법:
  - 법륜스님께서 강의하신 녹음테이프와 교재가 우송됩니다.
  - 과목별로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 철저한 학사관리를 합니다.
8.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림판 사진 2매
9. 통 상 비: 입학금 10만원, 안락기 20만원 (분할 가능)      \* 국민은행 823-01-0148-855<이지민>
10. 교과내용

심전적 불교사상	인간본다	근본불교	법륜의 변천사
법성계	신심법	반야심경	육조단경
관경과 불교	복지와 불교	평화와 불교	정진과 불교
입 수행의 수행	입 수행의 입	마음 다스리는 길	민족의 역사

##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우형문화재 범패전수자)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중(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 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우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敎大學 학장 허가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